

원효사상의 유아교육적 의미 탐색

조순영* · 임재택**

본 연구의 목적은 사상가이자 교육자인 원효의 삶을 살펴보고, 원효사상의 유아교육적 의미를 탐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원효의 삶과 사상을 검토하고, 원효의 세상보기 방식을 통하여 아동관, 교육관, 유아교육방법, 유아교사론에 대한 반성적 검토를 시도하였다. 원효의 일심(一心)사상은 인간과 만물이 하나로 회통할 수 있다는 화쟁(和諍)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어느 것 하나가 다른 것의 우위를 차지할 수 없다는 탈중심적인 개념으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원효의 세상보기 방식은 이중 긍정과 이중부정의 교차적 세상보기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원효사상이 유아교육에 시사하는 교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들의 마음이나 뜻을 하나의 틀로 한정짓거나 미리 진단하고 예측하는 일을 삼가고 많은 가능성 속에서 열려 두어야 한다. 둘째, 원효는 도덕의 강요나 지식의 주입은 머리를 통한 훈련일 뿐 자신의 본성을 살리는 교육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원효가 대중을 교화하기 위하여 사용한 방법이 춤과 노래였듯이, 유아들을 위한 교육은 예술교육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무사심(無私心)은 유아교사가 지녀야 하는 중요한 덕목인데, 사심이 없을 때 유아들의 존재를 선입견이나 편견 없이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주제어(Key words) : 원효(Weonhyo)

아동관(the view of the child)

유아교사(early childhood teacher)

예술교육(art education)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 교신저자, so0318@frecchal.com

** 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I. 서론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개인의 인격완성, 그러한 개인이 모인 이상세계에 대한 염원은 지금까지 교육을 통하여 부단히 추구되어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그리하여 교육의 문제는 과거의 연장이자 지금 여기의 문제이며 동시에 미래와 교류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총괄하는 더 나은 교육을 위하여 패러다임의 변환을 제기하고 수없이 다양한 시도들을 해 보지만 그 길을 찾기란 쉽지 않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 새로운 이론과 사상의 홍수, 수차례 변화하는 교육과정과 정책 속에서 어지럼증을 느끼게 될 즈음, 원효의 사상은 오늘날 유아교육에 많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7세기를 살았던 역사적 인물 원효와 21세기 현대문명을 살아가는 우리가 도대체 어떤 연결점을 가질 수 있길래, 그를 통하여 지금 여기의 교육에 대하여 논하고자 하는가?

원효가 살았던 당시는 가히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퓨전의 시대(김원명, 2008)’였다. 7세기 한반도의 삼국은 제각기 자신의 문명을 꽃피우며 활발히 교류하고 중국, 일본과도 밀접한 왕래가 이루어졌다. 중국을 통일한 당나라의 문명이 빠르게 밀려들면서 이에 대하여 일부 지나친 경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새로운 종교인 불교가 유입된 지 100여년이 지나면서 각종의 종파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또한 고조선시대부터 내려오는 전통이 살아있는 시기로, 전통과 새로운 문물이 교차하며 새로운 문명을 창출해내던 시대였다. 그러한 시대에 원효는 그 모두를 종합하며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 모든 다양성을 꿰뚫어 이해하는 틀을 만들었다. 원효는 당시 동아시아의 학문적 전통, 즉 유교, 노장, 불교를 공유하고 계승하면서도 고유한 자기 전개를 이루고 있다(김원명: 2008).

이와 같이 원효가 범을 펼쳤던 시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의 시대와 유사하다. 외국 문물이 유입되고 이것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기존 문화와 융합 또는 충돌을 경험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시기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오랜 시간 한국의 사상과 문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불교가 유입된 지 100년이 지난 원효의 시대, 이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사상·문화·정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서양문물이 유입된 지 100여년이 흘렀다. 지금은 원효의 시대와 유사하게, 수많은 사상과 문화와 종교가 이 땅에서 꽃피고 있는 시기이며, 이러한 다양한 문화들이 우리들 자신 속에 포용되며 하나로 엮어져 질적인 도약을 이루어야 할 즈음에 도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질적인 도약이란 패러다임 시프트를 의미한다. 패러다임 시프트는 기존의 논리나 가치관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의 방법을 달리 구하는 것이다.¹⁾ 21세기는 사유의 측면에서 기

1) 패러다임 시프트는 60년대 자연과학 쪽에서 만든 말이다. 1930년대 이후 뉴턴의 물리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례를 발견하게 되자 자연과학이 그런 사례들을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이해의 방법”을 찾아가는 것을 일컫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새로운 이해의 방법”, 새 패러다임은 당연히 전보다 현상을 더 잘

존의 틀을 넘어서는 새로운 사상을 요구한다. 그리하여 포스트모더니즘, 현상학이나 해석학, 생태학 등 새로운 사유의 방법에 대한 탐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환을 의미하는 시도들과 원효의 사상은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 원효의 사상은 앞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꾀하는 사상들이 한결 같이 비판하는 근대적 사유 방식을 거부한다. 원효의 사유는 분석적 실증적 특징을 지니는 근대적 사유방식과 달리, 융합과 회통 그리고 마음의 문제를 강조하고 있다. 결국 원효의 사유를 통하여 근대적 사유에 토대를 두고 있는 교육방식에 대하여 반성적 고찰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원효는 자신만의 독특한 사상체계를 이룩하여 일본이나 중국 대승불교의 발전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던 인물로도 유명하다. 대승불교는 특정인들의 귀족불교를 거부한다. 대승불교는 종래의 출가중심의 소극적인 전통교단에 만족하지 못한 재가신자와 비구들이 재가자까지도 출가자와 똑같이 구원된다는 불교를 일으킨 것이다. ‘커다란 탈 것’이라는 대승의 의미는 출가뿐 아니라 재가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구제될 수 있는 탈 것이라는 의미이다(上田義文, 1982/ 1989: 211). 커다란 탈 것이란 이 우주를 하나의 커다란 탈 것으로 본 것이며, 이 우주를 일체로 본다는 것은 연기법이 작용하는 하나의 존재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원효는 모든 이들이 각자의 길을 따라 궁극의 세계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원효의 대승사상은 불교사상사에서 큰 획을 그었으며, 이는 교육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세상의 이중성을 그대로 인정하고 이중부정과 이중긍정을 통한 원효식 세상보기는 자연과 인간을 인위적인 개조의 대상으로, 교육받아야만 하는 대상으로 보는 시각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원효식 세상살이, 즉 모든 존재를 그대로 인정하고 각자가 가진 재주를 꽃 피우는 과정에 사람들이 원하는 궁극적인 곳에 도달하게 되며, 자신이 지닌 개성을 살려 서로가 이익을 주는 세상살이 방식은 유아교육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원효의 대중교화 방식은 교육 방법적 측면에서도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원효는 중생을 근기에 따라 구분하여 각자의 수준에 맞는 수행법을 제시하였으며, 이론이런 행으로 나아가는 토대이자 행의 통로임을 실천으로 보여주고 있다(이효령, 1999a: 118). 즉 원효는 깨달음을 추구하는 승려이면서 중생구제라는 대중 교육에 일생을 바친 교육자였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원효의 사상은 인간관, 교육관, 교육방법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미를 도출해 낼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상가이자 교육자인 원효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통하여 오늘날의 유아교육을 반성적으로 검토하고, 원효사상의 유아교육적 의미를 탐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첫째, 원효의 삶과 사상을 검토하고 둘째, 원효사상이 오늘날 유아교육에 던지는 교훈을 아동관, 교육관, 유아교육방법, 유아교사론의 측면으로 각각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원효의 삶과 사상은 첫째, 원효의 생애와 사상적 기원에 대하여 알아보고, 둘째, 원효가 세상

이해하게 해서, 거기서 새롭게 자연을 설명하는 논리가 나오고 또 그런 자연법칙에서 세계관이나 다른 개인적, 사회적 가치관도 나오게 된다(백기범, 2004).

을 바라보는 방식을 검토하며 셋째, 원효의 인간관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원효사상이 유아교육에 시사하는 교훈에서는 첫째, 아동관은 조작적 교육 행위와 이중적 세상보기의 차이를 통하여 논할 것이고 둘째, 유아교육관은 도덕지식의 주입과 본성을 살리는 교육의 차이를 통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셋째, 유아교육방법의 측면에서는 예술 미학과 무의식 교육의 중요성에 대하여 논의하고, 마지막으로 탁월한 교육자의 길을 걸은 원효의 삶의 방식을 통하여 유아교사론을 고찰하고자 한다.

II. 원효의 삶과 사상

1. 원효의 생애와 사상적 기원

원효는 617년(신라 진평왕 39년) 압량군 불지촌(현 경상군 압량면 신월동)에서 태어났다(일연, 1977). 원효라는 이름은 가장 많이 통용된 범명이고 그 외 서당(誓幢), 새부(塞部), 구룡(丘龍), 해동, 소성거사(小性居士)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었다. 원효의 젊은 시절에 관한 자료는 없고, 다만 젊은 나이에 출가하였다고 전해진다(김원명, 2008; 예문동양사상연구원, 2003).

원효는 그의 나이 34세인 650년(선덕여왕 4년)경 의상과 함께 당나라로 유학을 가려다 요동 땅에서 고구려군에 발각되어 감옥에 갇혔다가 탈출한다. 45세에 의상과 다시 당나라로 유학 가던 중 땅막(土窟)과 무덤의 차별이 마음에서 비롯됨을 깨닫고 스스로 발길을 돌려 신라로 돌아와 불교의 대중화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 뒤 분황사에서 저술과 포교활동을 하다가 포항의 오어사(吾漁寺)에 머물며 혜공(惠空)과 교유한다. 이 때 그 유명한 오어사의 이름의 유래가 나오게 된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개울가에서 물고기를 잡아먹고 바위 위에 똥을 누고는 혜공이 원효에게 “그대의 똥이 나의 고기일게다”라는 이야기를 하였다. 이는 일반적으로 고기와 똥을 동일 선상에 둠으로써 하찮은 것과 귀하고 소중한 것이 한가지라는 의미를 담은 말로 해석된다. 혜공은 술과 춤을 좋아하고 삼태기를 등에 지고 다닌 기이한 승려이며 신라 10성의 한 사람으로 일컬어진다. 혜공은 원효의 스승이자 선배이자 도반이었다(예문동양사상연구원, 2003; 일연, 1977).

원효가 대략 38세에서 45세 즈음 요석공주와 연을 맺어 설총을 낳았다. 설총은 이두를 창시하였으며 한국 유교의 문묘에 배향된 십팔유현 가운데 첫 번째로 모시는 유학자가 되었다. 그 뒤 원효는 스스로 승복을 벗고 소성거사(근기가 작은 사내)를 자처하며 무애행(無礙行)을 실천하였다. 66세에 집필 활동을 멈추고 굴(穴寺)로 들어가 그의 나이 70세 686년 3월 30일 입적하였다(일연, 1977).

원효는 많은 저술을 남겼다. 학자들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대략 80여 부 150여 권 정도로 보며, 현존하는 온전한 저술은 18부 22권 또는 15부 23권으로 본다. 그 외 일부 또는 단편만

남아 있는 것이 12종 가량이다.

당시 대부분의 승려가 왕실이나 귀족 출신이며 그들의 존경을 받으며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것과 달리, 원효는 시장거리며 뒷골목 등을 누비며 승려가 아닌 속인의 차림으로 서민들 속에서 춤과 노래로 불법을 설하였다. 그리하여 천민, 빈민, 거지,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모두 원효를 허물없이 따랐다. 그들과 어울리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며 춤추고 노래하며, 그들로 하여금 염불을 부르게 하고 정토에 대한 희망을 주며 그곳을 정토로 만들고자 노력하였다(김원명, 2008).

원효사상의 기원에 관하여서는 여러가지 설이 있다. 원효사상은 그 깊이나 폭이 워낙 깊고 방대하여 여러 가지 해석이 존재하며, 이는 사상의 기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은정희(2003: 11)는 원효의 화쟁(和靜)사상의 기원을 인도의 베다 사상에서 찾는다. 또한 김영호(2000)는 원효의 화쟁사상을 인도나 중국의 전통과 다른 고유한 사상으로 보고 있다. 대부분의 불교학자들은 원효의 화쟁사상의 기원을 676년 삼국통일이 되기까지 여러 번의 전쟁 속에 피박한 민중들의 삶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아, 당시의 정치사회적 배경을 토대로 설명하고 있다.

이에 비해 김원명(2008)은 원효 화쟁(和靜)사상의 기원을 단군조선으로부터 전해오는 대감곳과 신라의 화백회의 전통에서 찾고 있다. 대감곳에서는 신시시대 신시(神市)에서 별인 의사결정형식을 엿볼 수 있다. 화백회의 역시 독특한 의사결정방식을 가지고 있다. 화백회의는 전원일치로 성립되는 회의체제로, 의사결정은 다수결이 아닌 상호상쇄로 하나의 의견으로 나아가 만장일치로 결정된다. 그는 화랑도를 통해 화백제도를 경험한 원효가 화백사상을 불교라는 외래종교를 내면화하는 틀로 삼았을 것으로 보고 이 과정에서 화쟁(和靜)사상이 나오게 되었다고 추측하였다. 여러 의견들을 고루 내고 그 의견들을 두루 아우르며 하나로 어울리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조화를 추구하는 화백의 정신은 화쟁(和靜)사상의 밑바탕이 되었다고 충분히 짐작할 만하다.

2. 원효의 세상보기 방식

원효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은 이중부정과 이중긍정의 교차적 세상보기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이러한 사상은 『금강삼매론경』 서문에 잘 드러나 있다.

夫一心之源離有無而獨淨	무릇 일심의 근원은 유(존재)와 무를 떠나 홀로 해맑고 깨끗하며,
三空之海融眞俗而湛然.	삼공의 바다는 진여와 세속을 융화하여 깊고 넉넉하다.
湛然融二而不一	깊고 넉넉하여 진여와 세속의 두 세계를 융화하되 하나로 합일하지 않고,
獨淨離邊而非中.	홀로 해맑고 깨끗하여 유(존재)와 무의 양변을 떠나 순환의 외중에 있지 않다.
非中而離邊	순환의 외중에 있지 않고 유(존재)와 무의 양변을 떠났으므로,

故不有之法不卽住無	불유의 법이라고 하여 곧 무에 거주하는 것도 아니고,
不無之相不卽住有.	불무의 현상이라 하여 곧 유에 거주하는 것도 아니다.
不一而融二	하나로 합일하지 않고 두 세계를 융화하므로
故非眞之事未始爲俗	비진여의 사실이 비로소 세속이 되는 것이 아니고,
非俗之理未始爲眞也.	비세속의 이법이 비로소 진여가 되는 것도 아니다.
融二而不一	두 세계를 융합하되 하나로 합일하지 않으므로
故眞俗之性而無所不立	진여와 세속의 본성이 정립되지 않는 바가 없고,
染淨之相莫不備焉.	물들고 해맑음의 현상이 갖추어지지 않는 바가 없다

(김형효, 2006: 22).

위의 글을 보면, 유무를 떠나 맑고 깨끗한 ‘일심’과 진여와 세속을 융화하는 ‘삼공’이 교차하며 등장하고 있다. 첫줄에서 일심이 나오고, 둘째와 셋째 줄에서 삼공이 나온다. 그리고 그 다음 넷째 줄부터 일곱째 줄까지 다시 일심에 대한 설명이 뒤따르고, 그 뒤 다시 삼공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반복하며 교차하는 방식의 글을 통해 원효가 전하고자 하는 바는 교차적 세상보기이다(김형효, 2006 참조).

이는 대승사상의 기초가 된 『반야경』이라는 책이 불교를 이론적으로 해명한 책이 아니라 반야바라밀을 얻으려면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책이라는 사실과 같은 원리이다. 이론의 책으로서 『반야경』을 본다면 반복이 많고 지루해서 읽어 나가기가 어려우나, 행함을 가르치는 책으로 볼 때는 반복을 통하여 행의 기본을 설하고 있다(上田義文, 1982/1989: 215). 결국 원효가 『금강삼매경론』을 통하여 읽으려는 불법의 로고스는 이중긍정과 이중부정의 교차배어법(交叉配語法, antimetabole), 이중긍정 내부의 상호업힘, 진여의 진리가 그 자체 격자무늬로 짜여진 이중성임을 보여주는 것이다(김형효, 2006: 57). 즉 원효는 『금강삼매경론』을 통하여 상관성의 상징인 卍자를 해석한 것이고, 이는 가로줄과 세로줄이 차례로 교차하며 형상을 만들어 가는 그물처럼, 세상만물은 긍정의 긍정, 부정의 부정, 긍정과 부정의 교차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하고 한 것이다.

이중긍정과 이중부정이 현실에서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현재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그 상태를 부정하고 그것에서 떠났을 때부터 시작된다. 부정하고 떠나지 않고서는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나를 떠나 나를 바라보았을 때 나를 알기 시작하고, 가족을 떠나 가족을 바라보았을 때 비로소 가족을 제대로 알기 시작하며, 지구를 떠나 우주공간에서 지구를 바라보았을 때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보게 된다. 자신을 낮설게 보고 밖에서 바라볼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자신을 알게 된다. 자신을 떠나 자신을 부정하는 것은 나를 알고 긍정하는 출발점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울고 웃고 분노하지만 그것을 즐길 수 있는 것은 거리를 두고 바라보기 때문이다. 한 발 물러나 사태를 바라보면 같이 기뻐하고 슬퍼할 수 있되 그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이것

이 바로 부정의 의미이다.

그러나 그 부정은 긍정의 반대 개념으로서의 부정에만 머무는 것은 아니다. 그 부정은 다시 긍정으로 이어진다. 나에게 대한 부정이 다시 긍정으로 이어져서 나를 받아들이게 된다. 그랬을 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렇지만 이것은 단순한 복귀가 아니다. 출발할 때와는 다른 모습으로의 복귀이다. 이것은 부정을 포함하고 있는 긍정이므로 단순한 긍정이 아니라 풍성하고 포용할 수 있는 긍정이 된다. 이렇게 부정과 긍정이 함께 갈 때, 어떤 대상에 대하여 제대로 된 파악이 가능하게 된다. 이것이 원효가 말하고 있는 이중적 세상보기의 방식이다.

3. 원효의 인간관

원효는 『열반경종요(涅槃經宗要)』에서 『열반경』을 인용하여 “모든 중생은 불성을 가지고 있다(一切衆生悉有佛性)”고 하였다. 여기서 불성이란 여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의 씨앗을 말한다. 그리고 원효는 불성의 體가 곧 一心이라 하였다. 그래서 그는 일심으로 인간과 만물이 근본에서 다르지 않으며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님을 설파하였다. 원효가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은 ‘일심’에 잘 드러나 있다.

일심이란 무엇인가? 더러움과 깨끗함의 모든 법은 그 성품이 둘이 아니고, 참됨과 거짓됨의 두 문은 다름이 없으므로 하나라 이름하는 것이다. 이 둘이 아닌 곳에서 모든 법은 가장 진실 되어 허공과 같지 않으며, 그 성품은 스스로 신령스레 알아차리므로 마음이라 이름한다. 이미 둘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가 있으며, 하나도 있지 않거늘 무엇을 두고 마음이라 하겠는가. 이 도리는 언설을 떠나고 사려를 끊었으므로 무엇이라 지목할지 몰라 일심이라 부르는 것이다.²⁾

일심은 분별을 넘어선 마음이다. 일심은 분별하는 마음으로는 구할 수 없고 이미 본래부터 중생심에 내재되어 있다(강의숙, 2004: 7). 원효가 일심과 중생심이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있다. 원효는 45세에 의상과 함께 당나라로 유학을 가는 도중, 비가 와서 어느 땅막(土窟)에서 자게 된다. 아침에 깨어 그곳이 땅막이 아니라 오래된 무덤이라는 것을 알았다. 부득이 그 다음날도 그곳에서 자게 되는데 밤에 귀신에게 시달리며 악몽을 꾸게 된다. 그 일로 인하여 원효는 일체의 일이 모두 마음에서 비롯됨을 깨닫고 유학을 접고 돌아온다.

2) 원효, 『대승기신론소』 “何爲心 爲染淨濟法其性無二 亡二門不得有二故名爲一 此無二處 不同虛空 性自神解 故名爲心 然既無有二 何得有一 一無所有 就誰曰心 如是道理 離言絕慮 不知何以目之 強號爲一心也” 해석은 강의숙(2004) 참조.

어젯밤 잠자리는 땅막이라 편안했는데, 오늘밤은 귀신의 집에 의탁하니 매우 뒤숭숭하구나. 알겠도다! 마음이 일어나므로 갖가지 현상이 일어나고, 마음이 사라지므로 땅막과 무덤이 둘이 아님을. 삼계는 오직 마음이요, 만법은 오직 인식일 뿐이다. 마음 밖에 현상이 없는데 어디서 따로 구하겠는가? 나는 당나라에 가지 않겠다.³⁾

원효는 땅막과 무덤이 둘이 아니며, 생사와 열반이 둘이 아님을 깨닫게 된다. 이 일을 계기로 원효는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을 얻게 되고 인간의 내면에 있는 마음의 본질을 깨닫게 된다.

그리하여 원효는 일체 법의 근본 뜻을 ‘일심이문(一心二門)’으로 요약하였다. 일심이문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구절로 “염정(染淨)의 모든 법이 그 본성이 둘이 없으니 진망(眞妄, 참과 거짓)의 이문(二門)이 다름이 있을 수 없다”⁴⁾라는 구절이 있다. 세상의 모든 사물이나 이치들은 본질에 있어 서로 떨어져 있는 둘이 아니므로 참과 거짓 또한 서로 융합될 수 없이 완전히 동떨어진 어떤 대립자가 아니라는 의미이다. 일심이문이란 본래의 성질에 있어 만물은 독립적으로 구분하기 어렵고 서로 연결되어 하나로 이어져 있음을 강조하는 말이다. 원효가 주목하는 감추어져 고요한 측면의 진여문과 드러나 생멸하는 측면의 생멸문은 ‘하나도 아니고 다르지도 않으며(非一非異)’ ‘서로 여의지도 않고 서로 섞이지도 않는(不相離不相雜)’ 관계 없는 관계로서 일심의 이중성과 통일성을 말해주고 있다(김원명, 2008: 41).

‘일심(一心)’은 원효사상의 주요한 핵심인 화쟁(和諍)사상의 근원이기도 하다. 일심으로 인하여 모순되고 대립되는 모든 견해들이 서로 화쟁할 수 있다. 화쟁(和諍)은 바로 ‘불교의 모든 법문들이 다 이치가 있으며, 다 이치가 있으므로 모두 허락되지 않음이 없고, 허락되지 않음이 없기 때문에 통하지 않는 것이 없다’⁵⁾는 지혜이다. 또한 못 경전의 부분을 통합하여 온갖 흐름의 한 맛으로 돌아가게 하고, 부처 뜻의 지극히 공변됨을 열어 다양한 학파의 다른 주장들을 어울리게 한다.⁶⁾

그러나 원효의 화쟁사상은 세상의 모든 대결을 종식시키고 하나로 합치자는 일원론적 통일을 주장하는 사상이 아니다. 즉 원효는 회통(會通)을 말하지 회통(會統)을 말하지는 않는다(김영호, 2000). 화쟁사상은 세상이란 애초에 서로 다른 무수한 존재들의 존재치이며 동시에 그 존재들이 서로 통하지 않는 법이 없이 관계맺음을 하고 있음을 말하는 사상이다. 이 우주의 모든 존재들은 각기 자기 나름의 고유한 색과 멋을 지니면서 동시에 본래 하나이기 때

3) 『송고승전(宋高僧傳)』 권4, 「의상전(義湘傳)」(『대정장』 50, 729쪽 상). “前之寓宿，謂土龕而且安；此夜留宵，託鬼鄉而多崇。則知！心生故種種法生，心滅故龕・墳不二。又三界唯心，萬法唯識。心外無法，胡用別求。”(예문동양사상연구원, 고영섭 편, 2003 재인용)

4) 원효, 은정희 역, 88쪽. 此無二處諸法中實，不同虛空，性自神解，故名爲心。

5) 원효, 은정희 역, 『이장의』, 소명출판, 2004, 260-261 참조.; 『이장의(二障義)』, 한국불교전서1, p.814상 05-06, “所設諸難 皆有道理 有道理故悉無不許 無不許故無所不通”

6) 『열반종요(涅槃宗要)』, 한국불교전서 1, “統衆典之部分歸萬流之一味 開佛意之至公和百家之異諍”

문에 서로 어울려 살 수 밖에 없고, 서로 조화롭게 어울릴 때 각 존재들이 진정한 자신의 색과 맛을 낼 수 있다고 보는 사상이다.

그래서 화쟁사상은 인간을 대상으로 도덕 윤리적 당위를 설정하고 이를 설득하고자 하는 사상이 아니라, ‘서로 다른 것들의 어울림’이라는 세상의 법칙을 말하는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분별하는 마음을 그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미 가지고 있는 일심(一心)을 일깨우기만 하면 된다. 일심은 이미 가지고 있는 마음이므로 외부로부터 어떤 도덕적 윤리나 이상을 주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는 본 마음인 일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이처럼 일심은 모든 중생들이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는 ‘일체중생실유불성(一切衆生悉有佛性)’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 일심이 있으므로 일체 중생은 불성을 가지고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원효는 인간을 불성을 가진 존재로 보아 모든 이들이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 불성은 일심을 통하여 드러난다. 원효의 인간관 중 일심의 개념에서 유의할 점은 인간을 개별적 인간에 국한하여 해석하기보다 인간과 인간과의 회통적 관계에 중심을 두었다는 점이다. 나아가 인간들 관계의 회통에 국한되지 않고 인간과 만물을 회통하는 존재로 바라본다. 그래서 일심은 인간중심적인 개념으로 사용되지 않고 인간과 만물이 하나로 회통할 수 있다는 화쟁(和靜)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하나로 회통하므로 어느 것 하나가 다른 것의 우위를 차지할 수 없다는 탈중심적인 개념으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Ⅲ. 원효사상의 유아교육적 의미

1. 이중적 세상보기

원효의 이중부정과 이중긍정의 사고는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유아들에게 가해지는 각종의 조작적 행위가 얼마나 무의미하며, 뿐만 아니라 그것이 유아들을 온전하게 성장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을 알게 한다. 왕필의 다음의 글을 보자

天地任自然, 無爲無造, 萬物自相治理, 故不仁也, 仁者必造立施化, 有恩有爲. 造立施化, 則物失其眞, 有恩有爲, 則物不具存, 物不具存, 則不足以備載矣.(천지는 스스로 그러함에 자신을 맡길뿐이다. 그래서 함이 없고, 조작함이 없다. 그래서 만물은 스스로 서로 다스리며 질서를 유지한다. 그러기 때문에 인자하지 않다고 말한 것이다. 인자하게 되면 반드시 조작하고 편들어 세우고 베풀고 변화시키고 하는 따위의 장난이 개입된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다 함이 생기고 함이 있게 된다. 조작하고 편들어 세우고 베풀고 변화시키면 사물은

그 본래의 진실한 모습을 잃어버린다. 은혜를 베풀고 함이 있게 되면, 사물은 온전하게 존속될 수 없다. 사물이 온전하게 존속되지 못한다는 것은 곧 천지가 만물을 온전하게 생성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김용옥, 1999: 243-244)

조작하고 편들고 베풀고 변화시키고자 하는 어른들의 태도는 유아를 온전하게 존속시키지 못한다. 예컨대, 유아들 간에 갈등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부모나 유아교사의 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갈등을 중재할 때, 먼저 유아들에게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설명하도록 하고, 성인이 이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유아교육 현장에 있는 대부분의 유아교사들은 유아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상처받지 않도록 진정으로 노력한다. 그러나 종종 갈등을 중재하는 대응 방향이 그 상황을 단지 중단시키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적지 않은 수의 유아들을 동시에 보살피야 하는 유아교사의 입장에서, 위와 같은 방식은 빠른 시간에 위협요소나 갈등상황을 중재하는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유아들이 무엇을 학습하게 되는지, 유아들의 마음에 남는 찌꺼기가 무엇인지에 대하여서는 좀 더 신중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비교하여 전통 사회에서 할머니의 갈등중재 방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할머니는 먼저 유아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는다. 이때의 ‘듣기’는 싸움의 승자와 패자, 또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가르는 판단을 하기 위한 들음이 아니다. 그저 두 사람의 항변을 느긋하게 충분히 들어준다. 그리고 할머니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모를 정도로 모호하게, 빈 허공을 향하여 “예구 그러면 쓰냐? 쫓쫓”라고 말씀하신다. 유아들은 자신의 생각과 처지를 털어놓고 말하는 과정에서 그 마음이 이미 상당부분 풀어지고, 또한 할머니의 모호한 꾸짖음으로 인하여 위로를 받는다. 이 때 할머니는 정의의 심판자 역할을 하지 않는다.

유아들이 또래와의 갈등으로 인하여 울음을 터뜨릴 때 그들은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하였는지 사건의 진위 여부를 따지기 원하기보다, 누군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고 달래어 주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다. 듣기를 위주로 하는 성인의 느긋한 태도는 유아를 위로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허공을 향하여 던지는 “그러면 쓰냐?”라는 식의 모호한 말은 갈등을 일으킨 유아 둘 다에게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게 하여 뉘우치도록 하는 효과를 가진다. 천지만물이 그러하듯, 유아는 자기 스스로 다스려 질서를 유지하여 가는 존재이지, 인자함과 은혜를 베풀므로 인하여 조작하여야 하는 존재가 아니다.

유아들 내면의 갈등이든 외부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이든, 그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풀어내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것인가는 어른들에게 달려 있으며, 이에 대한 해답을 원효가 제시하고 있다. 진정한 앎을 지닌 대장부는 맹목적으로 하나의 진리만을 뒤쫓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다(원효, 은정희 역, 2002: 188). 원효의 사상에 의하면 우선, 갈등이 지니는 이중적 성격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갈등은 단지 없애고 사라져야 하는 악이 아니다. 인간

의 삶은 항상 갈등의 연속이므로 사실상 어떠한 갈등도 없는 삶이란 찾기 어렵다. 그러므로 갈등이란 없애기 위하여 아무리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갈등 그 자체가 세상의 존재 방식이며, 갈등은 어떤 측면에서 의미 있고 가치로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갈등을 피하고 제거해야 하는 악으로 보기보다는 그 갈등을 어떻게 조화롭게 넘기고 승화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세상의 이중적 측면을 인식하고, 갈등 자체를 없애기 위하여 노력하기보다 갈등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원효는 대상을 일정한 틀에 한정짓는 행위나 이것과 저것을 구분지어 선택하는 행위에 대하여 경계한다. 세상의 이중성을 인식한다면 세상의 일들이 칼로 가르듯이 명확히 구분되어 나누어지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고, 인간의 행위가 좀 더 신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원효는 “부처의 뜻을 한정지으려는 것은 마치 소라로 바닷물을 길으려는 것과 같고 대롱으로 하늘을 보려는 것과 같을 뿐이다”⁷⁾라고 하였다. 예컨대, 사계절은 분명 존재하지만 어느 날 어느 시점부터 여름인지 정확히 말할 수 없다. 풀잎은 초록이지만 어떤 색이 진짜 초록 색이라고 한정지어 말할 수 없다. 초록이 우거진 산에 같은 초록은 없다. 실로 다양한 초록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으며, 더욱 깊게는 다양한 초록과 초록 아닌 다른 색이 함께 어우러져 있다. 이것이 자연이고 세상의 이치이다.

특히 옛이야기 책을 보면 전통 사회 사람들이 선과 악, 삶과 죽음 등 세상의 이중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옛이야기 책에는 악이 자주 등장하지만, 이야기의 결말은 대부분 악의 박멸로 끝나지 않는다. 예컨대, ‘해치와 괴물 사형제’라는 이야기를 살펴보자. 해치는 예부터 전해 내려오는 상상의 동물로 해를 지키는 신이다. 괴물 사형제는 해치 몰래 해를 훔쳐간다. 해치는 괴물 사형제와 싸워 해를 되찾고 괴물 사형제는 도망을 간다. 괴물 사형제는 그 뒤로도 가끔 나타나 심통을 부린다는 이야기로 끝을 맺는다. 이 이야기에서 해치는 선의 상징으로, 괴물 사형제는 악의 상징으로 등장한다.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마지막 결론 부분이다. 결론에서 선이 악에 대하여 승리를 거두지만, 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숨어버린다는 점이다. 악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틈만 나면 세상에 다시 나타나 심통을 부린다는 내용으로 결론을 맺는다. 이는 선의 완전하고 영원한 승리, 그리고 악의 완전한 소멸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야기의 결론은 선과 악이 한 세상에서 엇치락뒤치락하며 앞으로 계속 같이 살아감을 암시하고 있다.

결국 이 이야기의 교훈은 악이 벌을 받는다는 점에 있다기보다, 선과 악, 삶과 죽음, 상반되는 두 가지 존재들이 공존함을 이야기를 통하여 경험하게 된다는 점이다. 현실세계에서 삶과 죽음, 선과 악이 같이 존재하며 한 인간의 마음속에 두 가지 성향이 공존하듯이, 이야기 속에서도 이 두 가지 상반된 요소는 공존한다.

현대의 유전공학이나 생명공학에서 생명이 최상의 선으로 죽음은 생명을 부정하는 요소로

7) 원효, 『열반장요』, 한불전 1, p.547a18-21, 限於佛意, 是猶以螺酌海用管關天者耳.

작용한다면, 옛이야기 속에서 삶과 죽음은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두 가지 요소일 뿐이다. 옛이야기에서 죽음이 묘사되는 것을 살펴보면 종종 일상으로 이야기된다. ‘해님과 달님’에서 호랑이에게 잡아먹히는 엄마의 죽음에서 그러하듯이, 대단한 사건으로 묘사되지 않는다. 전체 이야기 흐름 속에 자연스럽게 삽입되어 대단한 슬픔과 대단한 악도 아닌 단지 하나의 사건으로 이야기될 뿐이다. 즉 삶은 선, 죽음은 악이라는 구도로 묘사되지 않는다.

최진덕(2004)은 오늘날의 생명과학은 인간의 생명을 오로지 소유의 대상으로 보아 그것을 조작하려고 할 뿐 생명의 유한성에 대하여, 죽음과 얽혀 있는 생명의 본질에 대하여 더 이상 사유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죽음을 외면하거나 부정하고 삶만을 추구하고 긍정한다면 이는 진정한 의미의 살아 있는 삶이 아닐 것이다. 삶과 죽음이 공존할 때, 삶과 죽음은 자신의 진정한 의미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원효가 설파하는 세상의 이중성을 통하여 유아들을 바라본다면, 유아들은 내면에 이기심과 이타심이 함께하고 선함과 악함이 공존하며, 행위에서는 미숙함과 익숙함이 어우러져 있는 존재이다. 성인은 유아들이란 이와 같이 다양한 또는 상반된 서로 다른 것들을 동시에 간직하면서 성장하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기다려 줄 줄 알아야 한다. 부처의 뜻을 한정지으려 하는 행위가 어리석듯이, 유아들의 마음이나 뜻을 어느 하나의 틀로 미리 한정지으려 하지 말아야 한다. 성인의 눈으로 미리 진단하고 예측하는 일을 삼가고 많은 가능성 속에서 열려 있을 때, 유아들은 자신의 길을 스스로 찾아 갈 수 있을 것이다.

2. 본성을 살리는 교육

원효의 사상에 근거한다면 교육은 지식의 습득도 도덕의 훈련도 아닌 마음에 좋은 업을 길들이도록 하는 것이다. 좋은 업은 어떻게 길들여지는가? 어린 유아라고 할지라도 자신보다 어리고 약한 동생을 보면 도와주고 보살피고 싶은 마음이 생기며,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기도 한다. 그러나 모든 유아들이 늘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러하기에 어른들은 유아들에게 곧잘 “동생에게는 양보해야 돼”라는 말을 한다. 즉 도덕적인 지식을 어린 시절부터 심어주기 위하여 노력한다.

마찬가지로 유교에서는 유아기 교육방법으로, 어린 시절에 좋은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들려주어 그 말이 귀에 못이 박혀 성장하면 저절로 그것이 몸에 배어 나오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한다. 이는 어린 시절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행동은 성장 후에 의식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의 깊은 내면의 마음은 그러한 의식적인 주입에 의하여 길들여지지 않는다. 교육 현장이나 심리학에서는 예의바르고 공손한 유아 또는 성인이 내면에 많은 분노나 화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적지 않게 보게 된다. 도덕적 인식의 무장에서 나오는 배려와 본성의 발로로 드러나는 타인에 대한 배려심은 분명 차이가 있다. 어린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강조

하고 가르친다면 도덕적으로 더 나은 인간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성의 자발적 표출로서 드러나는 마음에 비할 바가 아니다. 특히나 어린 시절부터 도덕만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면 오히려 자신의 본성을 감추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른다.

유아에게서 폭력적이거나 타인을 괴롭히는 등의 부정적인 행위가 나오지 않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훈계나 처벌이 주어질 때이고, 다른 하나는 유아들이 즐거울 때이다. 전자는 도덕에 의한 누름이고 후자는 자신의 본성에 의한 해체이다. 행복한 사람은 타인에게 의도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공격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행복하고 즐거운 유아는 친구에게 공격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타인을 배려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으로 기르기 위해서는 유아들을 억누르지 말고 즐겁게 하여야 한다.

지눌선사는 각자가 가진 재주를 꽃피우면 부처가 지혜를 꽃 피우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인간이 각자 자신이 원하는 바대로 자기의 일을 한다면 다툼이 없을 것이다. 자신이 스스로 원하여 하는 행위는 그것이 아무리 강한 노동일지라도 놀이가 되고 행복을 맛본다. 유아들 놀이의 개념 정의는 ‘스스로가 선택하여 자발적으로 행하는 행위’이다. 자신이 원하여 하는 일은 놀이가 되고, 놀이가 된 일을 열심히 할 때 인간은 자신의 재주를 꽃피우게 된다.

이처럼 유아들 각자가 가진 재주와 능력을 발휘하여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주도록 하는 교육이 본성을 살리는 교육이며 존재론적 교육이다. 본성을 살리는 존재론적 교육은 그리 멀리 있지 않다. 예컨대, 유아교육기관에 다니는 만 5세의 한 유아는 글자를 읽을 수 없지만, 곤충에 많은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유아들이 새로운 곤충을 발견하면 그 유아를 찾아간다. 곤충의 이름이 무엇인지 물으면 그 유아는 곤충의 이름뿐 아니라, 곤충의 모양과 습성까지 친구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한다. 또 다른 유아는 종이접기를 무척 좋아하며 잘 한다. 유아들이 종이 접기를 할 때는 그 유아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며 도움을 주는 유아 또한 기뻐한다. 또 다른 유아는 달리기도 잘 하고 힘도 세다. 그 유아는 힘이 세기 때문에 자칫 유아들 속에서 힘으로 군림할 수도 있으나, 그 힘을 다른 이들을 돕는 곳에 사용하도록 한다. 무거운 물건을 들고 가야 있는 친구를 돕거나, 위험한 장난을 하는 동생을 재빨리 달려가 도와주는 등 몇 번의 경험을 통하여 유아는 자신의 힘을 어떻게 사용할 때 스스로 기쁨을 느끼게 되는지 알게 된다.

이렇게 제각기 다른 유아들이 서로 그 다름으로 인하여 도와주고 도움 받으며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각자 자기가 지닌 개성으로 자기의 타고난 본성으로 보시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를 맺은 유아들은 서로 미워하며 다투거나 하는 일이 거의 없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선한 행위란 어른들의 칭찬이나 강압, 설교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을 때 얻게 되는 기쁨과 만족을 충분히 느낄 때 습이 되고, 그런 습이 모여 인간이 변화될 수 있다.

그러므로 유아들 각자의 관심과 개성, 장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꽃 피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교육에서 매우 중요하다. 인간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인간다울 수 있고 신명

나며, 타인과 잘 어울리며, 자신의 본성을 발휘할 수 있다. 원효는 도덕의 강요이나 지식의 주입은 머리를 통한 훈련일 뿐 자신의 본성을 살리는 교육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오히려 당위와 두려움으로 인하여 인간을 위축시키며 자신의 본성을 누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결국 교육이란 인간들이 제각기 다르게 지니고 있는 각자의 관심과 재능을 드러내도록 하고, 이를 발휘하여 스스로를 돕고 타인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예술미학적 교육

이중긍정은 예술 미학적 입장과 상통한다. 모든 것을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긍정하는 것은 예술의 세계에서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예술에서는 시비와 판단이 존재할 수 없다. 판단의 세계를 넘어 선과 악(善惡), 생과 사(生死), 시와 비(是非), 호와 오(好惡), 그 모든 것이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예술의 세계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예술교육은 인간의 감성이나 무의식 교육과 관련 있다. 예술은 이성과 판단을 중심으로 하는 의식의 세계뿐 아니라 직관과 무의식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인간은 의식이 아닌 무의식에 의하여 본질적으로 좌우되는 존재이다. 인간 행위의 토대는 욕망, 즉 무엇인가를 하고자하는 의지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이 욕망은 무의식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진다. 그래서 인간이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아닌 외부로 향하는 욕망과 함께 남과 나를 비교하여 남보다 더 우월하기를 바라며 남이 인정해주기를 바라는 인간의 세계에서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이러한 욕망을 무시하고는 불가능하다.

욕망 또는 의지는 깊은 무의식적 차원의 것이며, 이러한 욕망을 의식의 힘을 빌려 누르고 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남보다 더 나아가 한다는 끝도 없는, 결국에는 질 수 밖에 없는 이 싸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의식의 차원에서는 불가능하다. 결국 이러한 욕망은 나와 남이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승화로 인하여 극복 가능하다. 나와 남이 다른 존재가 아니고 하나임을 인식하는 것은 의식차원에서는 가능하지 않다.

살아가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주와 내가 하나라는 느낌을 예기치 않은 순간에 경험하게 된다. 이런 경험은 대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새생명이 탄생하는 순간, 한적한 산 속에서 갓 돌아난 새싹을 볼 때, 남모르게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었을 때 등, 미리 예측하거나 노력하여서가 아니라 예기치 못하게 어느 날 문득 손님처럼 다가온다. 이러한 무의식적 깨달음을 통하여 인간의 의식은 확장된다. 그러므로 인간이 지니는 욕망을 다스리고자 한다면 무의식적 차원의 교육이 필요하다.

도덕교육을 통하여 인간이 진정으로 바뀔 수 없다는 것을 앞서 살펴보았다. 특히 어린 유아들에게 도덕교육이란 의식적 차원에서도 받아들이기 힘든 과제이다. 무의식적 차원의 교

육이란 가르치고 주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Slattery(1995)는 무의식의 영역은 자신의 내적 힘에 의해 드러날 수 있고 내적인 힘이란 직관의 개발과 관련 있다고 하였다. 무의식 차원의 교육은 스스로 느끼고 깨닫게 하는 교육이며, 스스로 느끼고 체험하는 교육이 바로 예술교육이다. 그러므로 예술교육은 판단하지 않고, 있는 존재 자체를 그대로 인정한다.

유아들의 교육은 예술교육이어야 한다고 할 때, 그것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첫째는 그림이나 조형, 몸으로 표현하기, 음악, 연극, 수공예 등 교과로서의 예술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예술 활동을 통해 유아들은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느낌을 표현할 수 있다. 예술 활동을 통하여 유아교사는 유아들에게 그리거나 만드는 기술이 아닌 세상이나 대상을 바라보고 느낄 수 있는 눈을 가지도록 한다. 남과 나를 비교하고 세상을 자기의 편리에 개조하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남을 인정하고 남도 나와 같은 존재임을 인식하고 세상을 존재하는 그대로 바라보도록 하는 눈을 길러준다.

예술 활동은 유아들의 직접적 욕구와 관련이 있고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동시에 유아들이 모두 좋아하고 즐긴다는 점도 중요하다. 예술작업을 통해 예술현상(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이 일어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한다. 예술성 있는 교육은 유아들의 삶을 여유롭고 풍성하게 해 주며,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스스로를 이해하도록 한다.

예술교육이 지니는 두 번째 의미는 유아들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이 예술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교육예술’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예술가는 결코 공장에서 같은 물건을 여러 개 만들듯이 예술 활동을 하지 않는다. 유아들은 저마다 개별적인 존재들이다. 대부분의 유아들이 일반적으로 동일한 발달단계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모두 다른 유아들이다. 그러므로 문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모든 유아들에게 똑같은 방법이 유용한 것은 아니다. 이 때 필요한 것이 유아교사의 교육예술이다. 같은 상황에서 어떤 유아에게는 부드러운 말 한 마디가 필요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말보다 따뜻하게 안아주는 행위가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때로는 단호하게 대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어느 하나가 정답이 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상황마다 유아교사마다 유아마다 서로의 개별성에 근거하여 보다 적절한 방법을 찾아 시도하는 노력과 행위, 이를 교육예술이라고 칭할 수 있다.

교직수행을 하나의 예술(art)이라 할 때, 이는 과학과 예술 사이의 간극을 의미하며 교직이란 과학이 아니라 예술임을 의미한다. 과학은 작은 조각으로 나누어진 부분을 전체로 환원하는 방식을 통하여 어떤 사물의 전체적 특성을 설명한다면, 이와 달리 예술은 부분과 전체는 본래 유기적인 관계이므로 환원을 통하지 않더라도 유기적 통합성을 가지며 부분 그 자체가 이미 전체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생태학적 관점 또는 홀리스틱 관점과 연결되어 있다.

원효는 무애가(無碍歌)라는 노래를 지어 무애박을 두드리며 노래하고 춤을 추며 사람들을 교화하여 가난뱅이나 코흘리개 아이들까지 모두 부처의 이름을 알게 되었고 “나무아미타불”을 부르게 되었다(일연, 1977). 이처럼 원효는 사람들의 처지와 맞고 공감할 수 있는 교육방

법을 사용하였다. 즐겁고 쉽기 때문에 유아들도 따라하며 가난한 사람들도 함께 할 수 있었다. 그의 교육법은 교육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무의식영역에 대한 교육을 위한 좋은 예로 ‘옛이야기 들려주기’를 들 수 있다. 역사 이래로 유아들의 지적 활동은 직접적인 체험활동 외에, 신화나 종교설화, 옛이야기에 의하여 이루어져 왔다. 특히 옛이야기는 유아들에게 어떻게 해야 한다고 직접적으로 충고하지 않으며, 성인의 시각으로 본다면 잔인하거나 정의롭지 못하거나 논리적이지 않은 등 비교육적인 내용들이 옛이야기 속에 종종 등장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아들은 옛이야기를 매우 흥미로워 하며, 어떤 유아에게 그 이야기는 꼭 필요한 이야기일 수 있다. 옛 이야기 안에는 치유의 힘이 들어 있기 때문에 나바호족 인디언이나 힌두의 전통에는 심리적인 질병을 앓는 사람에게 그에 알맞은 옛이야기 들려주기가 치유의식의 중요한 부분이었다. 어떤 직접적인 지시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옛이야기 속에서 자기 괴로움의 본질과 해결방법을 스스로 떠올리게 된다. 옛이야기는 어떤 행동강령을 제시하지 않는다. 옛이야기의 현실적이지 못한 직접적이지 않은 이런 면들은 인간의 무의식 차원과 연관이 있다.

융학파의 심리학자들은 옛이야기속의 인물과 사건은 원형적인 심리상태와 일치하며 그런 현상들을 표현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그리하여 개인과 종족의 무의식적인 힘으로 이루어진 내적 쇄신은 모든 개개인에게 유용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옛이야기는 무의식의 내용을 상징적인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 즉 인간 내면의 심리적인 현상들이 이야기 속에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옛이야기의 매력이다(Bettelheim, 1973/ 1998: 62-63).

그러므로 옛이야기는 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 옛이야기는 유아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쉽지만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와는 다르다. 옛이야기의 심오한 의미는 읽는 사람, 듣는 사람, 그리고 이야기를 들을 때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유아들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여 듣더라도 그 당시의 관심과 필요에 따라 새로운 의미를 발견해 낸다. 이것은 옛이야기가 지니는 이중부정과 이중긍정의 측면이며 또한 또 교육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원효가 대중교화를 하기 위하여 사용한 교육방법은 춤과 노래였듯이, 유아들을 위한 교육은 이야기가 교육이어야 한다. 교육이수 의식적 차원뿐 결국, 감성이나 무의식 차원의 교육이 중요하며, 특히 논리적 사고 이전 단계에 있는 영유아들에게는 감성이나 무의식 차원의 교육이 핵심적 내용을 되어야 한다. 음악, 그림이나 조형, 몸으로 표현하기, 연극이나 이야기 듣기 등 논리적인 또 교육은야유아들의 수준에 적합한 무의식 차원의 교육이다. 또한 저마다의 교육지니고 있는 유아들을 교육하기 위하여서 차کم 상황이나 유아에게 적합한 개별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시공간과 존재에 따라 상이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교육예술이 되어야 할 것이다.

4. 유아교사의 덕목으로서 무사심(無私心)

대중과 함께 하며 그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인생의 참의미를 깨닫게 하기 위한 원효의 노력은 그 어느 교육자들과 비교하더라도 모자라지 않을 것이다. 교육 대상자의 처지와 주변 상황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교육자는 제대로 된 교육을 행할 수 없다. 이는 교육이란 오직 그들이 처한 현실적 상황에서 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대중과 함께 숨 쉬고 생활하며 그들을 깨달음의 세계로 이끌고자 했던 원효의 일생은 진정한 교육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다. 원효는 무애가(無礙歌)를 부르고 무애무(無礙舞)를 추며 못 중생들과 함께 하였다. 또한 원효는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 자신의 각기 다른 모습을 드러내며 중생들을 깨달음의 길에 인도하였다. 이처럼 그들이 가진 수준에 따라 각기 다른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펼치는 교육자였다.

교육자로서 원효의 삶을 돌아볼 때, 두 가지 의미를 짚어볼 수 있다. 첫째는 대승적 입장에서 못 중생들을 깨달음의 세계로 인도하고자 한 점이다. 출가승이나 특권층에 한정되지 않고 가난한 이에서부터 어린아이까지 원효에게는 그 모든 이들이 깨달음을 향한 대상이 되었다. 마찬가지로, 유아교사는 단지 제도화된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자격증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유아의 인간적 성장을 돕는 존재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명지원, 2007: 456). 유아교사의 말과 행위는 유아에게 파편화된 하나의 낱말과 동작이 아니라 전 세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교직수행은 유아에게 주변의 환경적 요소나 인간적 관계를 그 유아와 연결시켜주는 고리와 같은 역할을 의미한다. 즉 유아교사는 지식을 전달하거나 기술을 전수하는 사람이기 이전에, 세상과의 관계 맺기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다. 이는 유아가 자기 스스로와 맺는 관계 그리고 또래나 성인들과 맺는 관계, 환경과 맺는 관계, 이 모든 관계의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이다. 이 과정을 통해 유아교사는 유아의 인격적인 성장을 돕게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교직수행을 위한 중요한 전제는, 유아교사는 유아들을 좋아하고 유아들과 같이 있는 시간을 진정으로 즐기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그 일이 빛을 발하듯이, 유아교사는 유아들과 같이 있는 것을 즐기고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이어야 유아교사로서의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둘째, 탁월한 교육자로서 원효의 면모는 중생들의 수준에 따라 각기 자신의 다른 모습을 드러내며 서로 다른 교육내용과 방법을 사용하였다는 점이다. 유아교사는 예술로서의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유연한 사고를 지녀야 한다(명지원, 2007: 456). 이와 같이 대상에 따라 적절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유연한 사고를 지니기 위한 전제조건은 사사로운 마음인 사심을 경계하는 것이다. 원효는 ‘대승의 본체는 텅 비어 있어서 태허와 같아 사사로움이 없다’⁸⁾고 하였다. 대승의 사사로움이 없는 무사성(無私性)은 소유부정의 정신을 대변한다고 볼

8) 원효 은정희 역, 『대승기신론 소·별기』 “其體也 曠兮其若太虛而無其私焉” 번역은 김형효, 2006: 236 참조.

수 있다. 왜냐하면 소유론은 곧 사적 영역의 고집에서 생기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적 영역의 소멸은 곧 자아의 호오(好惡)가 사라진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김형효, 2006: 241).

자아의 사사로운 마음인 좋고 싫음이 사라진 무사심(無私心)은 유아교사가 지녀야 하는 중요한 덕목이다. 사심이 없을 때 유아들을 존재 그 자체로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유아들마다의 차이를 인정하고 각자의 자리에게 자기 역할을 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 사사로운 마음이 작용할 때 유아교사는 편견을 가지고 유아들을 이리저리하게 재단하여 어떤 틀에 유아들을 끼워 맞추고자 애쓰게 된다. 사사로운 마음이 일어날 때, 공부를 잘하는 아이, 말을 잘 듣는 아이, 머리가 좋은 아이, 지도력이 있는 아이 등등의 틀을 가지고, 그 틀에 따라 유아들을 서열 매기게 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소유론적 선입견 없이 유아들마다의 차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무사심은 이제 막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유아를 교육하는 교사에게 꼭 필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다.

IV. 결 론

본 연구는 원효사상이 오늘날의 유아교육에 시사 하는 교훈이 무엇인지 찾으려는 의도로 시도되었다. 이를 위하여 원효의 세상보기 방식을 통하여 아동관, 교육관, 유아교육방법, 유아교사론에 대하여 반성적으로 검토하고, 원효사상의 유아 교육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먼저, 원효의 삶과 사상에 관하여 정리하였다. 원효는 이중긍정과 이중부정의 교차적 세상보기의 방식을 통하여 중생들에게 세상이란 상반된 것들의 만남과 교차임을 전하고자 하였다.

또한 원효는 인간을 불성(佛性)을 가진 존재로 보아 모든 이들이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고 불성은 일심(一心)을 통하여 드러난다고 보았다. 특히 원효의 일심사상은 개별적 인간이 지니는 한 마음에 국한되지 않고, 인간과 인간과의 회통적 관계 나아가 인간과 만물을 회통하는 존재로 바라보았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래서 일심은 인간중심적인 개념으로 사용되지 않고 인간과 만물이 하나로 회통할 수 있다는 화쟁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하나로 회통하므로 어느 것 하나가 다른 것의 우위를 차지할 수 없다는 탈중심적인 개념으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원효사상의 핵심적 이론들에 근거하여 그의 사상이 오늘날 유아교육에 시사하는 교훈을 찾아보았다. 원효의 사상이 오늘날의 아동관에 주는 교훈은 조작적 교육 행위와 이중적 세상보기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유아들은 내면에 이기심과 이타심이 함께하고 선함과 악함이 공존하며, 행위에서는 미숙함과 익숙함이 어우러져 있다. 성인은 어떠한 조작적 행위를 통해 유아들을 주조하기 전에, 유아들은 이와 같이 다양하고 상반된 서로 다른 것들을 동시에 간직하면서 성장하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기다려 줄줄 알아야 한다. 부처의 뜻을 한정지으려 하는 행위가 어리석듯이, 유아들의 마음이나 뜻을 어느 하나의 틀로 미리

한정지으려 하지 말아야 한다.

원효의 사상이 오늘날의 유아교육관에 주는 교훈은 도덕지식의 주입과 본성을 살리는 교육의 차이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원효는 도덕의 강요이나 지식의 주입은 머리를 통한 훈련 일 뿐 자신의 본성을 살리는 교육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오히려 당위와 두려움으로 인하여 인간을 위축시키며 자신의 본성을 누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인간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인간다울 수 있고 타인과 잘 어울리며, 자신의 본성을 발휘할 수 있다. 결국 교육이란 유아들 각자의 관심과 개성, 장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꽃 피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이며, 이를 통하여 스스로를 돕고 타인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원효사상이 유아교육방법의 측면에서 주는 교훈은 예술 미학적 교육의 중요성을 통하여 설명하였다. 원효가 대중교화를 하기 위하여 사용한 방법은 춤과 노래였듯이, 유아들을 위한 교육은 예술교육이어야 한다. 교육이란 의식적 차원뿐 아니라 감정과 무의식적 차원의 교육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논리적 사고 이전 단계에 있는 영유아들은 감성을 중심으로 하는 예술교육이 핵심을 이루어야 한다. 음악, 그림이나 조형, 몸으로 표현하기, 연극이나 이야기 듣기 등을 통한 예술교육은 유아들의 수준에 적합한 무의식 차원의 교육이다. 또한 저마다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유아들을 교육하기 위하여서는 상황이나 유아에게 적합한 개별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시공간과 존재에 따라 상이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교육을 교육 예술이라고 칭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원효의 탁월한 교육자로서의 삶의 방식을 통해 유아교사론을 살펴보았다. 유아교사는 교직을 하나의 직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좋아하여 자신의 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로 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유아교사는 유아들을 좋아하고 유아들과 같이 있는 시간을 진정으로 좋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각자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했을 때 그 일이 빛을 발하듯이 유아교사는 유아들과 같이 있는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어야 유아교사로서의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무사심(無私心)은 유아교사가 지녀야 하는 중요한 덕목이다. 사사로운 마음이 작용할 때 유아들을 이리저리하게 재단하여 어떤 틀에 유아들을 끼워 맞추고자 애쓰게 된다. 사심이 없을 때 유아들의 존재를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 없이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다.

레고가 아닌 그물과 같은 관계의 생태망 속에서 우리는 타인과 함께 살아 갈 수밖에 없고 함께 살아 갈 때 의미를 가지는 존재이다. 그리고 그 관계의 망 안에서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고 몰입한 사람은 인간의 본성에 한층 가까이 갈 수 있다. 그래서 각자의 원력(原力)을 키워 자신에게 주어진 길에 충실할 수 있다면, 그것이 교육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이상세계로 가는 길일 것이다. 유아들은 각자의 개성에 따라 자신의 장점을 살려 다른 이들을 도와주고 도움 받으며 함께 자랄 때 건강하게 성장할 것이고 유아들이 건강하게 자랄 때 어른의 삶 또한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는 이른바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하다. 이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이며 가히 공황수준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청년실업사태는 세계화 시대, 과잉의 시대에 공황이 갖는 특징 가운데 하나로 규정될 수 있다(백기범, 2004). 과잉은 집중에 의하여 일어난다. 유아들은 하나의 이론, 하나의 개념, 하나의 이상, 하나의 재능으로 집중시킨다면 앞으로 과잉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 것이다. 하나의 목표 아래 줄 세우기를 하고 이 줄 세우기에 뒤쳐진 사람들이 실업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은 오히려 단순하다. 유아교육에서 유아들마다의 원력(原力)을 살리고 각자의 재능을 꽃 피워, 한 줄 서기가 아니라 하나의 큰 원으로 서로의 손을 맞잡아 서는 것이다. 적을 만들어 대결을 하고 그 대립의 구조를 통해 자신을 지탱해 줄 에너지를 얻는 방식은 이제 지나가고 있다. 좀 더 호전적이고 전투적인 사람이 게임에서 이기는 삶의 방식은 앞으로 우리의 미래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이다(백기범, 2004). 인간의 마음은 무한한 확장된 범위를 가지고 있다. 인간의 이성으로 합리적인 선을 그어 놓은 그 선 밖으로 무한히 뻗어나갈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의식이며 마음이다. 이 확장된 마음은 자신 안에 갇혀 있는 ‘나’가 아니라 타인과 교류하며 이어지는 나를 의미하며, 또한 이는 진정한 나 ‘진아(眞我)’와 마주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유아교육은 확장된 나로 무한히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수많은 사상과 문화와 종파가 충돌하던 7세기에 원효가 그 모두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 다양성을 잇는 화쟁사상을 이미 만들었다. 그리고 이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사상이다. 원효의 사상은 너무나 방대하고 깊이가 있어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효에 대한 미친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대 유아교육적 의미를 찾고자 하였다. 이는 훌륭한 사상가들이나 교육자들이 그러하듯이 그의 사상은 늘 지금 여기를 돌아보게 하기 때문이다. 원효는 천년이 넘는 긴 시간을 뛰어넘어 오늘날의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그 울림을 따라 과거와 현재를 잇고, 그 울림에 따라 우리 삶의 방식, 유아를 키우는 방식에 대하여 성찰하고자 하였다.

몇 가지 제언을 덧붙이자면, 원효의 사상은 예술교육, 영성교육, 생태유아교육 등 현대의 유아교육이론들과 많은 접점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접근들과 함께 연구된다면 더욱 다양한 연구들이 도출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원효의 사상은 향후 좀 더 심도 있는 연구와 분석을 통하여 한국의 전통유아교육사상의 하나로 정립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원효사상뿐 아니라 한국의 전통사상에 대한 유아교육적 접근이 좀 더 체계적이고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면 한국 유아교육의 지평 확대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의숙 (2004). 원효의 공부론. **동서철학연구** 31. 229-248.
- 김영호 (2000). 원효 화쟁 사상의 독특성: 인도 및 중국과의 대조. **철학** 64. 5-34.
- 김용욱 (1999). **노자와 21세기 上**. 서울: 통나무.
- 김원명 (2008). **한국불교철학의 선구적 사상가 원효**. 파주: 살림.
- 김형효 (2006). **원효의 대승철학**. 서울: 소나무.
- 명지원 (2007). 홀리스틱교육 관점에서의 유아교육 활동. **열린유아교육연구** 12(4). 449-473.
- 백기범 (2004). 대혼돈과 사랑의 패러다임. **2004생명평화대회 자료집**. 31-59.
- 예문동양사상연구원, 고영섭 편 (2003). **한국의 사상가 10인 원효**. 서울: 예문서원.
- 원효 (2002). **원효의 대승기신론소·별기**. (은정희 역). 서울: 일지사.
- (2004). **이장의**. (은정희 역). 서울: 소명출판.
- 은정희 (2008). **은정희 교수의 대승기신론 강의**. 서울: 예문서원.
- 이효령 (1999a). 원효의 교육사상에 관한 연구(1). **한국사상과 문화** 3. 117-141.
- (1999b). 원효의 교육사상에 관한 연구(2). **한국사상과 문화** 4. 301-345.
- 일 연 (1977). **三國遺事**. (이병도 역). 서울: 광조출판사. (원본발간일 1285년).
- 최진덕 (2004). 생명과 죽음, 그리고 윤리: 노장과 유학의 사이. **생명사상과 윤리**.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上田義文 (1989). **대승불교 사상**. (박태원 역). 서울: 민족사. (원본발간일 1982년).
- Bettelheim B. (1998). **옛이야기의 매력**. (김옥순 역). 서울: 시공주니어. (원본발간일 1973년).
- Slattery P. (1995). Curriculum development in the postmodern era, New York: Garland Publishing, Inc.

Abstract

A Study on Early Childhood Educational Meaning of Weonhyo(元曉) Thought

Jo, Soon-Young · Lim, Jae-Tack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lessons to early childhood education from Weonhyo thought. This study examined the contents of education and the viewpoint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from Weonhyo thought. Weonhyo's way of seeing the world is a double positive and double negative method. Ilshim(一心) idea means that human and all being can communicate each other and one of those can't take precedence over the other. Lessons to early childhood education are as follows. First, children are beings with egoistic and altruistic mind, good and evil, inexperienced and experienced. Second, enforcing morality or memorization are just brain activities. Those activities do not help children to learn about their true nature. Third, the effective form of education for children could be art education. Last, teacher has to be unbiased, because unbiased person can accept children as what they are without any prejudi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was to find lessons to early childhood education from Weonhyo thought. This study examined the contents of education and the viewpoint on early childhood child education from Weonhyo thought. Weonhyo's way of seeing the world is a double positive and double negative method. Ilshim(一心) idea means that human and nature all being can communicate each other and one of those can't take precedence over the other. Lessons to early childhoodchild education are as follows:ing. First, children are is a beings with egoistic and altruistic mind, good and evil, inexperienced and experienced. Second, enforcing morality or andmemorization knowledge are just brain activities. Those activities do not help children to learn about their true naturenot education for child nature but brain practice. Third, the effective form of education for children has tocould be art and unconsciousness education. Last, teacher has to be unselfishunbiased, because unselfish unbiased person can teach accept children as what they are without a biased viewany prejudice.